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8호 [루게 제23310호] 주제99 (2010)년 12월 24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설

백두의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우리 조국은 끝없이 강성번영할 것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충천한 기세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의 선군령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싸워나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으며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백전백승으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 인민군대의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강대성과 존엄은 전적으로 혁명무력을 이끄는 최고사령관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지금 우리 조국은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며 김정일조선의 만대의 번영을 위한 대고조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우리 조국이 제국주의와 력사의 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경제와 문화, 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적과 놀라운 사변들을 다채단으로 일으켜나가고있는 것은 백두의 선군령장이시며 최세의 정치군사강국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모시고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책책을 지니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혁명의 존엄한 폭풍우를 진두에서 헤치시며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한 빛나는 승리와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천리해안의 선견지명과 비범한 예지, 백승의 지략으로 화를 복으로, 역정을 승으로 전환시키시고 탁월한 명군술과 초강대국으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는 우리 조국이 오늘과 같은 최강의 정치군사강국으로, 끝없이 융성번영하는 인민의 사회주의락으로 일떠서 빛을 뿌리게 한 근본원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같이 가장 간고하고 존엄한 혁명의 길을 헤치시며 세기적인 기적과 불멸의 영웅사사시를 아로새긴 전설적위인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특출한 정치실력과 백전백승의 선군혁명령도자 우리 조국과 민족, 우리 혁명과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적보적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계시며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신다. 올해의 력사적인 당대표자대회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장에서 높이 울려 퍼진 일심단결의 환호성,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의 결사공세의 함성은 우리 조국과 인민을 불패의 강대국, 강성민족으로 빛내여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천만군민의 뜨거운 감사와 열화같은 충정의 분출이었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행운이고 최고의 영광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승리, 강대성의 상징이시다.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모신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정치와 군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으로 우리 조국과 혁명을 이끄시는 최세의 선군령장이시며 여기에 우리 혁명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우리 조국과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가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책책을 지니신것은 근 20년이지만 우리 당과 군대를 이끌어오신 령도의 력사는 반세기를 헤아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선군을 우리 혁명의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군권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으셨으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강력한 주력군으로 키워주시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정치와 경제, 문화와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특히 우리 혁명앞에 최약의 시련과 역경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것은 우리 조국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리적표를 아로새긴 력사적사건으로 되었다. 선군정치의 전면전제로 심화발전된 것으로써 우리 혁명무력이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국방위주의 정치체제가 튼튼히 확립되어 우리 조국은 강력한 정치군사력에 의거하여 백승을 펼쳐나가는 불패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는 우리 조국은 자주적대가 강하고 그 어떤 대적도 범접 못하는 최강의 사회주의나라이다. 제국주의의 그 어떤 정치외교적 압력과 군사적공갈도, 봉쇄와 제제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혁명의 수뇌부결사공세의 맹세로 심장을 꿰이는 천만군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이 있고 적들이 그 한계를 알수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타격력이 있으며 백전백승의 고귀한 전통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지난날 국력이 약한탓에 외세에 짓밟혔던 우리 조국을 무적의 군력과 일심단결을 가진 정치군사강국으로, 자주의 최

강국으로 세계에 빛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업적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업적을 빛나게 실현해주신 최대의 공적으로 된다.

선군은 자주이고 존엄이며 승리이다. 오늘 선군의 우리 조국은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반제투쟁의 승리의 표대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조국을 필승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시어 그 존엄과 위용을 온누리에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을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신민의 기둥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뿐만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불패의 강군을 키워주시고 일심의 천만대오를 이끄시는 위대한 최고사령관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지적사랑은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열화와 같은 사랑이며 천만군민을 한몸에 안아 뜻을 같이하는 혁명가로 키워주시고 값없는 삶을 안겨주는 위대한 사랑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밑바탕에는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해 최고사령관도 군대와 인민들사이의 혼연일체의 위대한 서사시로 찬란히 빛나고 있다. 언제나 좌측을 보던 나의 병사들이었고 우측을 보던 나의 인민들이 있었으며 가운데를 보던 나의 일군들이 있었다 하시며 정력적인 선군정치의 길을 걸었음이 어가시는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다. 세상에 없는 나라마다 군대가 있듯이 무력을 통솔하는 사령관이 있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과 같이 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천만군민과 한덩어리가 되어 백승을 펼치는 위대한 최고사령관은 오직 우리 장군님뿐이시다.

사랑과 믿음으로 천만대오를 이끌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누리에 빛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적의 정치군사력에 의거하여 김정일조선의 대변영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군대와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최약의 역경속에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이 두번다시 구원되고 강성대국의 령명이 밝아왔으며 이 땅우에 융성과 번영의 일

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대고조의 폭풍속에서 인민의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최한한 사변들이 려이어 일어나는 기적적인 현실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 이시야말로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며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 행복이 있다는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있다.

최고사령관과 군대와 인민이 믿음과 사랑, 충정과 의리로 굳게 결합된 우리의 혼연일체는 영원히 불패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어버이로, 신민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결한 충정과 열화와 같은 신뢰심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질것이며 우리 혁명의 력사는 앞으로도 백승의 력사로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하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섰다. 오늘의 대고조전군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다져진 정치, 군사, 경제적잠재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위대한 수형님의 유흔대로 하여 우리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빛내이며 김정일조선의 후손만대의 번영의 리전을 마련하기 위한 혁명적전군이다.

우리는 위대한 백두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승리의 새년대를 펼쳐나가는 더없는 긍지와 보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혁명의 한걸음 신심드높이 나아가야 한다. 혁명의 수뇌부결사공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칙의 신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존엄한 시련과 역경을 돌파하고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 승리의 영원한 기치이시며 미래이시라는 철의 진리를 심장깊이 간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흔을 받들어 주체혁명의 빛나는 새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이 신념은 생명보다 귀중하다. 우리는 수령결사공위에 김정일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번영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절대불변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권위, 사랑과 업적을 한 속속마다 존 우위 하고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되고 혁명의 년대기마다 높이 발휘된 수령결사공위의 전통은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세대와 세대를 통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며 전당, 전군, 온 사회에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맞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며 오늘의 대고조의 하루하루를 수령결사공위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은 우리 혁명의 생명선이며 강성대국건설의 만년 초석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선군정치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며 강성번영의 희망찬 새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력사를 깊이 체득하고 투쟁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며 누구나 선군사상의 열렬한 실행자, 선군정치의 전진군에 응호관철자가 되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주체혁명의 강력한 주력군이며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권위대오이다. 인민군대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오중중 7면대청정형 위용등을 계속 힘있게 벌려 모든 장병들을 선군혁명의 전위투사, 수령결사공위로 심장을 불태우는 육탄용사로 키워야 한다. 혁명전쟁체제와 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당정치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명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군인기질이 차면치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첨단과전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싸움맛이 나게 강도높이 벌려 지휘관들은 주체전법에 정통하고 드센 배짱과 담력을 소유한 만능의 지휘관으로, 병사들은 최약의 조건에서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자립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용맹한 싸움꾼으로 준비시켜야 한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여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짚아하며 적들이 감히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무자비한 심멸적타격을 안겨야 한다.

선군장병들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최첨발전초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들에 있어 력사에 빛날 위훈을 계속 창조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온 사회에 총대를 사량하고 군사

를 성실히 배우는 기풍,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는 원군기풍이 확 차면치게 하며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을 높이 받들고 하루빨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나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고있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2012년에 기어이 사회주의조선의 대문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올해 정초 눈보라와 강추위로 마다하지 않았고 최첨발전초건설장을 찾으신것으로로부터 시작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은 한해가 다 저무는 오늘까지 대고조로 들끓는 나라의 방방곡곡에 끊임없이 이어지고있으며 천만군민의 심장에 비약과 용맹의 나뭇을 달아주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퍼추의인민생활 대고조의 불길에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승리의 포성을 계속 높이 울려나가고 있다. 경영업부문에서 생산의 기초를 높은 과학기술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최첨단과전을 힘있게 벌리고 현판부문에서 경영업현료를 주체화,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소비품의 질과 량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선형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는 건설의 불길따라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여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여 오늘의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최대로 높여야 한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높은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지니고 대담하고 완강한 공격전으로 선진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워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대국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오늘의 하루하루를 창조와 위훈으로 수놓아야 한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필승의 신심드높이 강성대국으로 폭풍쳐나아가는 선군혁명대오의 전두에 최고사령관이자 필멸 휘날리고있다.

최고사령관기는 선군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신념의 표대이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강성대국의 찬란한 패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났것이다.

모든 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정적위용과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경축 중앙정보대회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경축 중앙정보대회가 23일 4, 25분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조선로동당 기를 배경으로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특대공공 및 로동적위군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전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최룡해동지, 주구창동지, 김양건동지, 박도춘동지, 리태남동지, 태종수동지, 김경해동지, 문명덕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상성인민보안부장, 오국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 동지, 양현철동지, 강석주동지, 리용무동지, 홍석형동지, 김정각동지,

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예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

리에 굳게 뭉쳐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선군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참가자들의 철칙의 신념과 의지가 차면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는 예국가의 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조 무관단, 중국향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을 즈음하여 그이께 주조 무관단, 중국향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이 22일 꽃바구니를 보내어 왔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쓰여져 있다.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과 향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중국향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이 22일 꽃바구니를 보내어 왔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쓰여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이를 조선인민군

본사기자

조선은 불패의 강국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였다. 메히코신문 《우니다드 나세오》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사진을 모신 기념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김정일령도자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집중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면서 불패의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펼쳐 오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신념의 강군으로, 우리나라를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선군정치의 의의에 조선에서는 강성대국건설의 전향적면적이 열리

는 눈앞에 두고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반드시 열어 제키기 위하여 전체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조선의 장엄한 현실은 다음인 선군정치와 안아온 력사의 기적일것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은 불패의 강국으로 길이 위용될것이다. 방글라데시신문 《블리즈》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환호하는 군인들과 함께 담배를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고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이라는 제

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전사들을 자신의 혁명적자로, 아들딸들로 여기시며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위협한 곳도 다 찾으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는 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들어 상세히 소개하였다. 나이지리아신문 《뉴 나이지리아》는 제목으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강성대국으로 비약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결부하여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가시는 희세의 선군령장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퉁에 즈음하여

비범한 선견지명, 탁월한 령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당장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해의 높은 명마루에 최고사령관기가 세차게 나뭇간다.

혁명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총대의 위력으로 파갈이 헤쳐내고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신 질세의 위인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현수별빛나는 붉은 기록에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 것인가.

만민이 칭송하는 희세의 선군령장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높이는 나라 찬만군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오늘도 당보는 삼가 그의 존귀신성 영상을 모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어난 지략과 영군술을 지니고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담보가 있다.》

어느덧 19년의 력사가 흘렀다. 주제 80 (1991)년 12월 24일!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신것은 이미 수십성상에 걸치는 혁명령도의 나날 혁명무력건설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천리해안의 선견지명으로 우리 인민군대를 강화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만년미래를 확고히 담보하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에 대한 전당, 전군, 전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발현이었다.

총대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이 있다!

일제 50년전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시고 승리멸치오신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실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천출이없는 비범한 선견지명과 탁월한 령도를 떠나 누리에 존엄높은 오늘날의 선군조선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미제무장간첩선 《루에블로》호

사건, 《EC-121》대항간 첩비행기사건을 조작성의 악랄한 침략행동을 단호히 짓부신 196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백승의 력사를 즐기게 이어가는 영웅조선의 존엄을 그대로 천리해안의 선견지명으로 총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혁명적 당은 총대에 의하여 보위되어야 그 불세상이 담보되고 령도적적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군대가 총대로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어야 그들의 자주적 권리와 행복찬 생활이 담보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 할수 있다.

권군주제사상 확고명신!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진리당들과 그 령도자들이 현대수정주의에 말려들어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약화시키고 당과 군대,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키는데로 나가고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건설하시게 하신것은 실로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를 마련한 력사적사건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견지명의 군건설강령에 따라 전군의 주제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2006. 3)

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건설사상에서 일찌기 불수 없었던 수령의 락원으로 만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불굴의 의지를 일신하였다.

지난 20세기 90년대 우리 조국과 혁명앞에 조성된 정세는 참으로 엄혹한것이였다. 사회주의의 선진국은 단적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반동공세를 맞받아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그러한 시기 인민군대를 틀

어주고 엄연한 혁명의 난국을 과감히 타개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불굴의 의지를 일신하였다.

혁명강군의 본질적특성은 그 정치사상적우월성이다.

군대안에서 당정치사업을 훌륭히 수행하며 혁명군대가 비정치화, 비사상화되며 나중에는 자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되고한다는것이 력사의 교훈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시작도 군대를 가지고 하시였으며 사회주의의 위업의 종국적완성과 승리로 군대를 가지고 이룩하려고 하시였다고 하시며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사상론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신 그이의 혁명한 령도가 있어 전군에 수령결사옹위 정신, 결사관철정신이 팽 들어차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하나하나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령군체제와 혁명적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실기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 발전의 추이와 로동계급의 혁명

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사상론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신 그이의 혁명한 령도가 있어 전군에 수령결사옹위 정신, 결사관철정신이 팽 들어차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하나하나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령군체제와 혁명적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실기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 발전의 추이와 로동계급의 혁명

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사상론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신 그이의 혁명한 령도가 있어 전군에 수령결사옹위 정신, 결사관철정신이 팽 들어차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하나하나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령군체제와 혁명적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실기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 발전의 추이와 로동계급의 혁명

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사상론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신 그이의 혁명한 령도가 있어 전군에 수령결사옹위 정신, 결사관철정신이 팽 들어차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하나하나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령군체제와 혁명적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실기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 발전의 추이와 로동계급의 혁명

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사상론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신 그이의 혁명한 령도가 있어 전군에 수령결사옹위 정신, 결사관철정신이 팽 들어차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하나하나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령군체제와 혁명적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실기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 발전의 추이와 로동계급의 혁명

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사상론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신 그이의 혁명한 령도가 있어 전군에 수령결사옹위 정신, 결사관철정신이 팽 들어차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하나하나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령군체제와 혁명적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실기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 발전의 추이와 로동계급의 혁명

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사상론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신 그이의 혁명한 령도가 있어 전군에 수령결사옹위 정신, 결사관철정신이 팽 들어차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하나하나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령군체제와 혁명적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실기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 발전의 추이와 로동계급의 혁명

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사상론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신 그이의 혁명한 령도가 있어 전군에 수령결사옹위 정신, 결사관철정신이 팽 들어차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하나하나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령군체제와 혁명적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실기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 발전의 추이와 로동계급의 혁명

시대어에 비낀 송고한 뜻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진걸음이 태어난 수많은 시대어에 천만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다.

선군혁명대화, 당군, 혁명적 군인정신, 혁명적군인가정... 이 나라 찬만군민의 뜨거운 격응속에 불러보는 이 시대에 들에 깃든 송고한 뜻은 과연 무엇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높은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시대어들을 외워보는 이 나라 찬만군민의 마음속에 경애하는 장군님, 사랑이나 총알이나 하는 심각한 물음이 시시각각 제기되던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 인민들은

자신의 심정을 꼭 리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며 선군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의 기록하신 모습이 뜨겁게 새겨졌다.

기나긴 인류력사도 그 류례를 알지 못하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완성되고 가장 완벽한 자주정치, 필승의 보검으로 버려져 선군조선은 불패의 강국으로 전진시킬줄 그 누가 상상이나 하였으랴.

우리 다시금 새겨보자, 백두령상의 전진걸음. 그 길에는 풍랑사나운 바다를 헤쳐야 하는 초도어로의 배기도 있었고 미끄러지는 야전차를 밀며 한치한치 전진해야 했던 오성산의 칼바람길도 있었고.

그 위철찬만한 전진걸음에서 폭풍과 췌기법, 야전생활, 야전리발, 야전숙우과 같은

남말들은 또 얼마나 많이 태여났던가.

만단사연을 안고있는 이 시대어들은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그처럼 간고한 시기에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끊임없는 전진걸음을 이어가시며 우리가 어떻게 위생보유국, 핵보유국의 지위를 떨치며 불패의 나라로 솟구쳐오를수 있었는가를 다 말해주고있다.

이 시대어들이 오늘날 우리의 긍지로, 자랑스러운 대담으로 되였다.

고난속에서 세워진 강성대국 건설목표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 불철주야의 헌신으로 하여 리상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있으니 나라 찬만군민이 어찌 선군길에 태어난 뜻깊은 시대어들을 무한한 행복과 기쁨속에 외워

보지 않을수 있으랴. 미복벌의 가을풍경, 장자강의 봄야경, 원효봉의 사과꽃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시대어들이 자랑스러운 찬가처럼 불리워지는 가슴벅찬 현실을 목격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목도하며 선군의 한걸음 힘차게 달려온것이 찬만번 정당하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뜻이 바로 이 시대에 깃든 송고한 뜻이 아닐까. 선군길에 태어난 시대어들은 선군만이 살길이며 행복과 번영의 길이라는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끊임없는 선군정세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가슴뜨겁게 전하며 세세년년 길이 전해질것이다.

정 순 학

선군의 위력 떨치는 길에서

사상과 총대

어느해 2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전선에 위치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적진을 살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목도하며 선군의 한걸음 힘차게 달려온것이 찬만번 정당하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뜻이 바로 이 시대에 깃든 송고한 뜻이 아닐까. 선군길에 태어난 시대어들은 선군만이 살길이며 행복과 번영의 길이라는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끊임없는 선군정세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가슴뜨겁게 전하며 세세년년 길이 전해질것이다.

정 순 학

일랑백의 기본열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에 무적필승의 나래를 날리주시기 위하여 전진길을 쉬임없이 걷고계신다.

주제 85 (1996)년 어느날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청이 되자

어느해 건군절이었다. 한 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식사준비정황을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민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음식들을 보여주시며 군인들의 구미에 대해서도 헤아려주시였다.

그때 한 일군이 병사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노력하고있는 부대지휘관들의 소행에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지휘관들이 형구실을 잘하는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김 동 철

행복의 창조자로 빛나는 삶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데는 오늘도 조국보위의 수호자들인 인민군대가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주력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도록 하기 위해 군인들을 찾아 쉬임없이 선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모습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화 30℃를 오르내리던 올해 정초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전진선군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조국의 수호자이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이신 병사들을 굳게 믿고 승리의 돌파구를 여실 강의를 위한 안으시고 먼길을 헤쳐오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날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건설소견설정에 흐르는 분과 초가 그대도 비약과 혁신이 이 열정의 도가니속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고. 이것이 바로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노력치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기상조자이라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군인들이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가 되어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세운 대가니비적창조물들은 그 열매이던가.

날마다를 가로지른 서해갑문과 사회주의조선의 땅담개천치개벽된 일망무제한 규격포진들에 가보던 그곳에 묻힌 병사들의 땅방울이 어려오고 시원하게 뿜어나간 도로들을 밟으면 그 길을 열어나간 병사들의 자욱이 새겨지며 무르익는 황금이삭들의

슬레임소리와 거세찬 발전소들의 동음을 들으면 병사들의 뜨거운 숨결이 가슴벅차게 느껴진다.

조국의 재부, 인민의 행복의 터전들은 바로 이렇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무한히 충실한 인민군인들에게 의하여 수없이 마련되였다.

이런 자랑찬 현실을 대할 때면 우리 인민군대를 본보기창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려고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장군님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가장 위력한 혁명집단입니다.》

어느해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그를 본보기로 우리 혁명대오를 정예화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로! 우리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송고한 뜻이 빛날지 모르나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주제 84 (1995)년을 맞으며는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천명사훈을 보내시였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이를 총후란이 되어 만들어나신 인민군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총명도지의 품속에서만 저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

오늘은 뜻깊은 12월 24일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이날을 맞을 때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벌 빛나는 성스러운 최고사령관을 승엄히 우러르고 또 우러른다.

진두에 펼칠 휘날리는 최고사령관은 이 세상 가장 존엄하고 위풍당당한 백두산혁명강군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지근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영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지난 10월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최세의 천출명장의 평도따라 백승만을 펼쳐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기상을 안고 조선인민군 특색공군장병들은 크나큰 적정과 꿰어오르는 환희에 넘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쳤다.

최정예혁명강군의 필승의 신심에 넘친 모습에 만축을 표시하시며 열병대오들에 달려들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발구를 쟁쟁 울리며 힘차게 전진하는 열병대오에서 터져 오르는 폭풍같은 열광의 환호성은 하늘땅을 진잡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위사울류경수제 105명사단에 대한 평도의 자욱을 새긴 력사의 그날로부터 장장 50성상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불승의 정예대로 키우시기 위해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크나큰 신철

최고사령관기 높이 날리며 승리와 영광 떨치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평도밑에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 원수벌 빛나는 최고사령관을 추켜들고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적군정신신의 창조자들은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의 수호자로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인 사명과 책임을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올해 정초 오종홍 7번대창호를 수여받은 군위사울류경수제 105명사단사관단과 구본대를 찾았으시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향하는 행군이 거창하게 펼쳐지고 사령관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에 천만군민은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인강국으로 사느냐 하는 준엄한 력사의 갈림길에서 시련을 박차고 일떠서 역경을 승경으로, 좌절을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걸음마다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며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그 앞잡이는 언제나 우리 인민군대다 서있었다.

면 단애에 소멸할 멸적의 투지를 안고 위력한 포화력으로 적진을 산산이 짓부셔 노도처럼 전진하였다.

이날에 올린 장엄한 포성은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무장으로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백두산혁명강군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힘있게 선언하는 력사의 포성, 승리의 포성이었다.

새해의 정초에 눈덮인 평을 넘어서 자기들의 초소를 찾으며서 전투력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근위공포병들이 터진터 집장의 웨치기 한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각에도 천만군민의 가슴 새차게 울려준다.

—우리 인민군은 원수벌 빛나는 최고사령관기를 높이 날리며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 갈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이 아닌 모든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억척같이 간직된 신념이고 의지이다.

이런 철의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국의 신성한 명맥을 지켜선 우리 혁명무력은 신성한 우리의 명맥에 포사격을 해대며 무분별하게 날뛰던 남조선피뢰침들의 군사적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조치를 취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발자들

의 불질을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다스리는것이 바로 민발을 하지 않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통적인 대응방식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최고사령관기를 날리며 언제나 승리를 떨쳐가려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역센 신념과 의지는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들에서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최철원조선건설청 비룡산강성대국건설청투우정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로 거세차게 타탄되고있다.

최세의 건설적명장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조선인민군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용을 떨쳐나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치곤
사진 본사기자 강정민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는 천철육의 정을 다하여 인민을 돕고 군대를 원호하는 원민원군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당의 평도밑에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진정한 동지적관계를 굳게 결합되고있으며 온 사회에 군민일치의 미풍이 차 넘치고있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긴 우리 군인들은 원민의 길에 뜨거운 진심을 바치고있다.

최철원조선건설청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은 발전조선건설청주변에서 살고있는 인민들의 불붙는 집에 뛰어들어 백두산3대장군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고 생명제산을 구원하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그들은 또한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하여 다리를 건설해주고 농장원들이 잃어버린 소도 찾아주며 천철육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사리원시주일락아소에 의한하게 꾸러진 노루와 사슴, 평과 메추리가 있는 동물사육도 우리들의 미풍을 위하여 바치는 인민군인들의 뜨거운 진심이 어려웠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부군 병사들은 매추 하루를 인민을 돕는 날로 정하고 마을의 전쟁로병, 인민군후방가족들을 천철육처럼 도와주었다.

천 철 육 의 뜨 거 운 정

남포시인민보안군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도 시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하여 숨은 노력을 바치였으며 원산시인민보안서 교통지휘대 교통보안원들도 시민의 영예로운 군인들과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천철육의 정을 다하여 도와주었다.

올해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힘있게 벌어졌다. 지난 기간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합동제 1백화집, 순천백화집, 중구역종합시장, 선교구역종합시장, 신천군량정사업소, 만경대구역인민병원, 홍남비료공장병원, 안변군 화산농장, 만경대구역 보육원학교, 외고단사업소 승용차수리사업소, 평양면우 제3작업반, 사리원공업대학 등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초소에 내세운 천차식들을 위하여는 심정으로 많은 원호물자를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병사들로부터 우리 어머니로 존경받고있는 대동강물고기상점 최금숙과 문덕군 립시리 리정복, 김책공업종합대학약사 박정숙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가정에서도 사는 뜻, 일러는 서로 달라도 된것의 한 길을 걸으며 인민군인들에게 대한 원호사업에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치고있다.

남을 따라 더욱 높아지는 원민원군미풍속에 우리의 군민단결은 더욱 철통같이 다져져 영예로운, 인민군후방가족들을 천철육처럼 도와주었다.

본사기자 로 주 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 있는 영도력과 품도,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우리가 최철원조선건설청을 찾은 날은 사나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며칠전이었다.

그 엄숙한 추위속에서 군인건설자들은 방만에 넘쳐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호각소리, 발동소리, 방송선전차에서 울리는 힘찬 군가, 군인건설자들의 노래소리... 언젠가 건설장은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북방의 사나운 추위속에서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편철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돋보였다.

《어찌면 이런 날씨에...》

말끝을 잊지 못하는 나에게 부대지휘관이 말하였다.

《이런 날씨가 왜 병사들의 심장이 더욱 불타는것

입니다.》

스스럼없이 튀어나온 말이나의 가슴을 뚫었다.

《어찌하는 나에게 그는 이 야기하였다.

지난해 9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건설장을 찾으시어 군인건설자들을 최철원조선건설청을 찾으신 그날부터 모두가 가슴속에는 하나의 소원이 간직되었다. 날마다 솟구쳐 오르는 언덕의 모습을

수필

녹지 않는 눈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여드리고 싶은것이였다.

그러면 지난 1월 경애하는 그이께서 베풀 30℃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을 뚫고 눈덮인 건설장을 다시 찾으시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건설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환호하는 군인건설자들에게 손을 높이 들며 뜨거운 격려를 보내주시며 그들은 눈물속에 맹세하였다.

다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찬 눈길을 걸으시지 않게 하자!

모두가 새 사람이 된듯싶었다. 이른새벽, 깊은 밤 누구도

작업장을 뜨려 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시간을 다하며 찾아올 것이다. ...

《그날부터 우리 병사들은 눈 오는 날이면 모두가 떨쳐나선 한점 눈이라도 쌓일새 건설장의 길을 살고 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떨치지 않았던 눈은 언젠가라도 병사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눈은 녹지 않는것이다.

그 눈이 어찌 최철원의 용사들에게만 간직된것이라.

한해가 다 저물어 가는 오늘도 찬눈길을 헤치고 우리 장군님 찾으신것은 조국보위초소의 군인들과 공장과 광산의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아니 장군님따라 선군혁명의 한길을 걸으며 살고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다 간직되어있다.

그래서 녹지 않는 눈이다.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기신로대의 자유자유훈이 그러도 물결고 장군님을 위한 천만군민의 총성의 맹세가 그토록 절절하기에 선군들의 눈은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녹지 않는다.

본사기자 림 현 숙

부강 조국 건설의 앞장에서

최세의 천출명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군대는 조국보위에서뿐 아니라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전투장마다에서 력사를 빛낸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선군시대와 더불어 이 땅에 수많은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부강조국의 건설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인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위훈이 찬연히 आरो세겨져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지시라면 불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켜야하는 인민군대들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그처럼 준엄했던 고난의 시기 어머니수령님의 유혹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인민군정년발전을 일떠세운 인민군인들의 위훈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준다. 제국주의자들의 걸걸진 봉쇄

책동과 편이는 자연재해로 하여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었던 그때 인민군인들은 백두산으로 끌어들여 쏟아지는 석수와 불락을 맞받아 한치한치 불길들을 열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위훈을 받들 이 땅에서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부강조국의 건설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인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위훈이 찬연히 आरो세겨져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지시라면 불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켜야하는 인민군대들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그처럼 준엄했던 고난의 시기 어머니수령님의 유혹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인민군정년발전을 일떠세운 인민군인들의 위훈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준다. 제국주의자들의 걸걸진 봉쇄

북방의 엄혹한 강추위속에서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고 한치한치 언젠가를 쌓아간 최철원조선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은 올해의 총공세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무한히 격조시켰다.

미더운 군인건설자들은 불과 4개월 남짓한 기간에 수도의 한복판에 선군시대 기념비적창조물인 국립연극극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웠고 반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나의 대자판체공공사와 딱딱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능력화장공사를 끝내으로써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배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더 굳게 해주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따라 선군시대의 앞장에서 조국의 수호자, 부강조국의 건설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쳐가는 무진대강한 백두산혁명강군을 가지고있기에 승리의 명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의 열광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오 혁

은 부식물을 자체로 생산하여 리용하고있다.

조혜영동무는 여기에만 만족하지 않고있다. 환자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도 높은 립상기술과 결합해 동양한 결실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한해에 10개 과에 해당하는 의료군인들을 대담하게 삼공급으로 학습을 보내고있다. 학습간의 의료군인들이 아무런 불이익도 없도록 병원일군들이 필요한 조건조건을 따라세우며 진심으로 방조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만을 드리는것을 삶의 목표로 내세우고 병원의 오늘을 물론 먼 앞날까지 책임지고 물러도 뛰는 헌장을 준영일군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일로 위하는 어머니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가 마음껏 꽃피고있는 과일군인병원의 오늘을 보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 모두가 한계 단위를 책임져 우리 일군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금 뇌리에 새기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주 조 무 판 단

종합교예 공연 관람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판 단성원들이 23일 종합교예 공연을 관람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

조선과 꾸바정부사이의 의정서들

한 의정서가 23일 평양에서 조인되었다.

조선에서는 우리측에서 리봉남부역상과 판계부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타노 주조 무판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당 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일군

과일군인 민병원 원장 조혜영동무

군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이 거둔 성과들중의 일부이다.

얼마전 병원을 찾았던 우리에게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군의 일군들은 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주었다.

10년 가까이 원장사업을 해 오던 조혜영동무는 병원부에서 당의 구상을 제일 먼저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이룩한 노력하고 있는 평범한 녀성일군의 한사람이다. 병원일군들의 지도에 불을 지피고 하였다. 불씨가 되고 대오의 기수가 되어 한치 새운 목표를 향하여 눈치도 안치 치달아오르던 그 날날들이 애로와 난대로 많았다. 지적 쓰러질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현저도강령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며 새 힘과 용기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대중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 능숙하게 이끌어 나가는 대고사투리의 참된 지휘관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시, 군인민병원들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모범단위들의 중의 하나인 3대혁명붉은기 과일군인민병원,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갖춘 갖추고 뇌 및 척추수술에 백내장수술 그리고 고막성형술과 같은 고급 인민병원수준의 수술도 손색없이 진행하는 의료일군들의 높은 립상기술수준, 피와 살을 바쳐 소생의 기쁨을 안겨주고 임원환자들의 생일상까지 꼭꼭 차려주어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과 귀중함을 심장깊이 새겨 주고있는 의료집단...

이것이 부상치료제와 같은 인민적인 보시책들이 인민들의 생활에 더치 미치게 할때 대한 율해공공사업의 정신에 맞게 살며 일해가고있는 과일

한편 19일과 20일에 운영된 국제반제재판소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침략전쟁과 경제봉쇄, 제재책동 등을 벌여오고있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행위를 기소청취하고 심의하였다.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은 20일 월남, 라오스청년학생대표단과의 상봉모임을 가지면서 여러곳에서 예술공연을 진행하였다.

존경받는 직장장

지난 10월이었다. 강동관 광영예관부직장인들에서 뜻밖의 화제가 발생하였다.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모두가 어쩔바를 몰라하고있었다.

이때 현장에서 일하고있던 4명의 종업원들의 등을 떠밀어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영예관탄부직장 직장장 리창근동무였다.

그리고는 화제현장에 서슴

없이 뛰어들어 불을 끄기 시작하였다. 머리칼이 불에 그슬려 몸이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병원으로 후송되어서도 동지들과 설비들의 안전상태에 대해 알아보고야 마음을 놓는 데 창근동무의 소행은 사회와 집단을 위한 헌신, 우리 사회에서 꽃피울수 있는 미풍이다.

로동철원정 남



영웅이 발휘한 숭고한 조국수호정신을 따라배워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결의에 넘쳐있다. —리수복은천화공업대학에서—

제 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주제별회의 및 토론회 진행

【평양 1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제 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주제별회의 및 토론회들이 17일과 18일에 진행되었다.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성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주제로 상을 구원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 청년중시정치와 조선청년들의

역할 등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다.

여러 나라 청년학생대표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의 정적정당성, 생활력에 대하여 격찬하고 조선인민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강화해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19일과 20일에 운영된 국제반제재판소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침략전쟁과 경제봉쇄, 제재책동 등을 벌여오고있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행위를 기소청취하고 심의하였다.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은 20일 월남, 라오스청년학생대표단과의 상봉모임을 가지면서 여러곳에서 예술공연을 진행하였다.

존경받는 직장장

지난 10월이었다. 강동관 광영예관부직장인들에서 뜻밖의 화제가 발생하였다.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모두가 어쩔바를 몰라하고있었다.

이때 현장에서 일하고있던 4명의 종업원들의 등을 떠밀어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영예관탄부직장 직장장 리창근동무였다.

그리고는 화제현장에 서슴

없이 뛰어들어 불을 끄기 시작하였다. 머리칼이 불에 그슬려 몸이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병원으로 후송되어서도 동지들과 설비들의 안전상태에 대해 알아보고야 마음을 놓는 데 창근동무의 소행은 사회와 집단을 위한 헌신, 우리 사회에서 꽃피울수 있는 미풍이다.

로동철원정 남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천하무적의 장군

백두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은 나라 인민들이 창공높이 새겨진 천하무적의 최고사령관을 한없는 긍지와 자랑스러움에 바라보며 촛구치는 적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특출한 정치신력과 무비의 담력, 탁월한 명군술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그의 명도보다 우리의 혁명적주장력은 미제의 악랄한 군사적위협과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결심하다 반부시며 승리만을 아로새겨왔다.

뜻깊은 이날을 맞아 남녘겨레의 가슴마다에도 천하무적의 백두명장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모와 경모의 정이 새겨져 파도치고있다.

《김정일장군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견주지 못할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지략을 지니신 천하무적의 최고사령관입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은 천하제일명장! 장군님께서는 인민족의 존엄을 빛나고 통일조국의 매일이 밝아온다.》

《위대한 군사정치가,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다.》

그를 높이 모신 여기에 우리 겨레의 밝은 미래가 있고 행

복이 있다.》

... 이것은 2.16동지회, 태양회, 백두회, 새별회, 소백수회, 자주회의 명의로 된 인쇄물들이 찍여진 글밭들이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세의 위인을 모신 한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설레이게 하는 글밭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환희의 분출이고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변함없이 김정일장군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려는 남녘의 굳센 신념과 의지의 반영이다.

얼마전 광주의 한 주민은 12월 24일은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날이라고 하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들여다보면 미국의 전쟁책동에 의해 조선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태에 있었으며 그 어느 명장도 견주지 못할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지략을 지니신 천하무적의 최고사령관입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은 천하제일명장! 장군님께서는 인민족의 존엄을 빛나고 통일조국의 매일이 밝아온다.》

《위대한 군사정치가,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다.》

그를 높이 모신 여기에 우리 겨레의 밝은 미래가 있고 행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높이 받들고 따라야 한다.》고 말하였다.

서울시 판악구의 어느 한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날 새벽 수회의 주최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명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돌아보고 여러명의 제야인사들이 이 집으로 모였다.

그들은 저마다 흥분된 마음을 전하자 마하마하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한 인화운동원단의 회원은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어리시였을 때부터 명장의 슬기를 키우시어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뱀재신의 아들로 탄생하신것은 분명 천출명장의 력사적출현이었다.》

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항일군이 벌여지던 백두산시절과 조선전쟁시기에 벌여 지, 인, 용을 겸비한 천하명장의 슬기를 키우시어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뱀재신의 아들로 탄생하신것은 분명 천출명장의 력사적출현이었다.

격정없이 대할수 없는 이들의 심정의 목소리라는 위대한 선군대양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혁명군대와 인민,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주제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뚝 솟아 빛나는 우리 공화국으로 쏠리는 남녘겨레의 강렬한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무비의 담력과 배양, 명철한 지략으로 승리만을 이룩해나가는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신것은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가장 큰 행운이며 행복이다.

본사기자 라설 하

김일성주석님 가까이 계시면서 신묘하고 천변만화하는 주제전법을 익히시었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백두의 선군명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성품에 매혹된 남조선의 한 퇴역장성은 천출의 글밭에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담았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 시기의 명장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니고계신다. 김정일장군님께서 20대에 벌써 항일빨치산대장, 전설적 명장으로 통하며 이름을 떨치신 김일성대장군과 뱀재신의 너장군 김정숙녀사의 위업을 이으시어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뱀재신의 아들로 탄생하신것은 분명 천출명장의 력사적출현이었다.》

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항일군이 벌여지던 백두산시절과 조선전쟁시기에 벌여 지, 인, 용을 겸비한 천하명장의 슬기를 키우시어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뱀재신의 아들로 탄생하신것은 분명 천출명장의 력사적출현이었다.

격정없이 대할수 없는 이들의 심정의 목소리라는 위대한 선군대양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혁명군대와 인민,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주제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뚝 솟아 빛나는 우리 공화국으로 쏠리는 남녘겨레의 강렬한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무비의 담력과 배양, 명철한 지략으로 승리만을 이룩해나가는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신것은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가장 큰 행운이며 행복이다.

본사기자 라설 하

《10대에 벌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적응한 주제적인 군사리론과 전법을 창조하시어 전군을 일당백의 대대로 만드셨다.》

《김정일장군님과 같은 위대한 장군이, 위대한 군사정치가 없었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민족이 낳은 최고의 거장이다. 위대한 군사정치가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다.》라고 썼다.

《세상사람들이 가슴을 울려주는것은 민족성원들의 송고한 도덕의리이며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격정없이 대할수 없는 이들의 심정의 목소리라는 위대한 선군대양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혁명군대와 인민,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주제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뚝 솟아 빛나는 우리 공화국으로 쏠리는 남녘겨레의 강렬한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무비의 담력과 배양, 명철한 지략으로 승리만을 이룩해나가는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신것은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가장 큰 행운이며 행복이다.

본사기자 라설 하

《이러는 제목의 글에서 《10대에 벌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적응한 주제적인 군사리론과 전법을 창조하시어 전군을 일당백의 대대로 만드셨다.》

《김정일장군님과 같은 위대한 장군이, 위대한 군사정치가 없었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민족이 낳은 최고의 거장이다. 위대한 군사정치가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다.》라고 썼다.

《세상사람들이 가슴을 울려주는것은 민족성원들의 송고한 도덕의리이며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격정없이 대할수 없는 이들의 심정의 목소리라는 위대한 선군대양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혁명군대와 인민,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주제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뚝 솟아 빛나는 우리 공화국으로 쏠리는 남녘겨레의 강렬한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무비의 담력과 배양, 명철한 지략으로 승리만을 이룩해나가는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신것은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가장 큰 행운이며 행복이다.

본사기자 라설 하

《이러는 제목의 글에서 《10대에 벌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적응한 주제적인 군사리론과 전법을 창조하시어 전군을 일당백의 대대로 만드셨다.》

《김정일장군님과 같은 위대한 장군이, 위대한 군사정치가 없었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민족이 낳은 최고의 거장이다. 위대한 군사정치가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다.》라고 썼다.

《세상사람들이 가슴을 울려주는것은 민족성원들의 송고한 도덕의리이며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격정없이 대할수 없는 이들의 심정의 목소리라는 위대한 선군대양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혁명군대와 인민,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주제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뚝 솟아 빛나는 우리 공화국으로 쏠리는 남녘겨레의 강렬한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무비의 담력과 배양, 명철한 지략으로 승리만을 이룩해나가는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신것은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가장 큰 행운이며 행복이다.

본사기자 라설 하

《이러는 제목의 글에서 《10대에 벌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적응한 주제적인 군사리론과 전법을 창조하시어 전군을 일당백의 대대로 만드셨다.》

《김정일장군님과 같은 위대한 장군이, 위대한 군사정치가 없었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민족이 낳은 최고의 거장이다. 위대한 군사정치가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다.》라고 썼다.

《세상사람들이 가슴을 울려주는것은 민족성원들의 송고한 도덕의리이며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격정없이 대할수 없는 이들의 심정의 목소리라는 위대한 선군대양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혁명군대와 인민,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주제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뚝 솟아 빛나는 우리 공화국으로 쏠리는 남녘겨레의 강렬한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무비의 담력과 배양, 명철한 지략으로 승리만을 이룩해나가는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신것은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가장 큰 행운이며 행복이다.

본사기자 라설 하

통일을 안아오는 선군정치

안제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결심은 매우 단호하다. 북의 선군정치결과는 그들이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현실세의 주도권을 안아오는 선군정치는 미국을 압박하여 자주통일의

최근 급변하는 조선반도정세는 력사의 주도세력이 누구인가를 용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모든 상황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자주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고히 발전하고있다. 실제로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미국을 압박하여 자주통일의

일정표를 민족의 의사로 확실히 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으며 또 그렇게 하고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최전선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민족의 기세로 이남의 식민지력사를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로 달려나가자!》

본사의 기자라설 하

민족수호의 위대한 경장

서울에 살고있는 한 퇴역장교는 어느날 자기의 집에 찾아온 동료들에게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호자로 높이 칭송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김정일최고사령관님을 경모하는것은 강위력한 선군정치로 민족앞에 이어 치명적전쟁을 일으킬 용기를 로복적으로 드러

그분의 위인적품모에 매혹되었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년은 민족의 운명이 전쟁위기로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기간이었다. 지금도 미국은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지향을 무시하고 조선반도에서 이어 치명적전쟁을 일으킬 용기를 로복적으로 드러

내 놓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최고사령관님께서 계시는 한어림도 없다. 만약 김정일최고사령관님께서 미국의 침략기도를 분쇄해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당했으리다. 김정일최고사령관님은 민족수호의 위대한 명장이시다.》

본사의 기자라설 하

천재적인 경군술에 매혹되어

서울의 한 력사학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칭송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출판물에 내었다.

《내가 김정일최고사령관님을 경모하는것은 강위력한 선군정치로 민족앞에 이어 치명적전쟁을 일으킬 용기를 로복적으로 드러

그분의 위인적품모에 매혹되었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년은 민족의 운명이 전쟁위기로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기간이었다. 지금도 미국은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지향을 무시하고 조선반도에서 이어 치명적전쟁을 일으킬 용기를 로복적으로 드러

내 놓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최고사령관님께서 계시는 한어림도 없다. 만약 김정일최고사령관님께서 미국의 침략기도를 분쇄해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당했으리다. 김정일최고사령관님은 민족수호의 위대한 명장이시다.》

본사의 기자라설 하

북침전쟁소동에 날뛰는 역적패당

재미동포인 리베트신문 《민족통신》이 문평에서 감히 《자위권》을 운운하는것자체가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문평은 조소하였다.

문평은 조선반도정세가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리명박 《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잃어버린 10년》이요 뒤로 하면서 《비핵, 개방, 3000》, 《그랜드 바진》과 같은 반공화국대결책을 고집하며 외세와 야합하여 북

침전쟁연습에 미쳐들아친대라고 주장하였다. 리명박 《정부》가 행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외정책을 일삼는 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보수없는 대결소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킬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것이라고 문평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라설 하

무모한 군사적대결책동을 규탄

최근 남조선 각계층에서 피뢰침국의 무모한 군사적대결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 울려나오고있다.

진보연대, 민주로총,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 평화실현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들은 지금 당국이 정세진장을 구실로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대목 붙이고 《자위권행사》나 뭐니 하며 북과 군사적대결을 고취하고있는 데 대해 비난하면서 만일 당국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창설함에 대해 명시한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였더라면 연평도포격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그들은 당국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청년학생들속에서도 당국이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청년연대를 비롯한 청년학생단체 대표들은 피뢰침국방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전쟁대결책동을 규탄하였다. 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정정협정이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당국이 군사적대결을 부를수 없는 모든 조치들을 철회하고 하루빨리 북과의 대화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피뢰침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반대하는 남녘의 민심은 얼마전 보수 《정권》의 임기직반기를 평가한 여론조사결과를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수당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통일선》 제안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부정적견해를 표시하였으며 금강산관광개성공업지구 활성화가 공일에 기여한다는 응답자는 68.6%에 달하였다.

또한 현 사태를 대화와 교류를 통한 북남관계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그것을 부정한 응답자보다 3배 이상에 달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83.6%가 현 《정권》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는것이라고 하였다.

사실들은 남조선 각계층이 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반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북남관계개선을 마라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라설 하

반민중적인 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

남조선의 《의료민영화》지 및 건강보험보장장강화를 위한 법규안(문준본부) 《의료민영화》지 법규안(문준본부)가 16일 서울의 《국회》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뢰침국의 반민중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규탄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뢰침국의 반민중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규탄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리명박 《정부》가 민중의 건강을 침해하고 의료비의 폭등을 불러올 반민중적인 민영화정책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의료민영화》지 및 건강보험보장장강화를 위한 법규안(문준본부) 《의료민영화》지 법규안(문준본부)가 16일 서울의 《국회》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뢰침국의 반민중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규탄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뢰침국의 반민중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규탄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리명박 《정부》가 민중의 건강을 침해하고 의료비의 폭등을 불러올 반민중적인 민영화정책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본사기자 라설 하

《북방한계선》은 긴장격화의 근원

《북방한계선》은 긴장격화의 근원

그것은 《유엔안》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에 기여는 미제가 정전직후 우리의 신성한 명맥에 제멋대로 내놓은 강도적인 것이다.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서는 일찍이 이 문제에 관여하였던 미국판리들러도 그것은 미국이 정전후 남조선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내놓은 《아로저지선》이지 그자체가 해상군사분계선은 아니라고 실토한다.

조선반도는 공화국 평화가 아니라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북남사이의 해상경계선문제는 매우 침체하고도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는 지난 조선전쟁의 교전쌍방이다. 그러므로 서해해상에 경계선을 확정하면 오히려 우리와 미국이 서로 마주앉아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아무런 사전합의나 통보도 없이 무

《북방한계선》은 긴장격화의 근원

그것은 《유엔안》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에 기여는 미제가 정전직후 우리의 신성한 명맥에 제멋대로 내놓은 강도적인 것이다.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서는 일찍이 이 문제에 관여하였던 미국판리들러도 그것은 미국이 정전후 남조선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내놓은 《아로저지선》이지 그자체가 해상군사분계선은 아니라고 실토한다.

조선반도는 공화국 평화가 아니라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북남사이의 해상경계선문제는 매우 침체하고도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는 지난 조선전쟁의 교전쌍방이다. 그러므로 서해해상에 경계선을 확정하면 오히려 우리와 미국이 서로 마주앉아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아무런 사전합의나 통보도 없이 무

본사기자 라설 하

우리 조국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 이 세상에 없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주년을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보고회가 21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산하 지구협회, 지부대표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와 재중조선인학생련합회 성원들 그리고 심양주재 우리 나라 부총영사가 참가하였다.

보고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주년을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보고회가 21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산하 지구협회, 지부대표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와 재중조선인학생련합회 성원들 그리고 심양주재 우리 나라 부총영사가 참가하였다.

보고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주년을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보고회가 21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산하 지구협회, 지부대표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와 재중조선인학생련합회 성원들 그리고 심양주재 우리 나라 부총영사가 참가하였다.

보고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방글라데시 단체 초청을 요구

방글라데시군정정치연구소가 14일 조선반도 남측지역에 있는 콩크리트장벽의 해체를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 구축된 콩크리트장벽이 31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존재하는것은 시대

의 흐름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이 장벽때문에 한쪽쪽을 나눈 조선인민이 마음대로 오가지도 못하고있으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콩크리트장벽처럼 한 민족의 대결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벽은 그 어디에도 없다.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분별과 대결을 고취하는 콩크리트장벽이 존재할 명분은 이제 없다.

우리는 분별과 대결을 추구하며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콩크리트장벽을 제거없이 해체할것을 남조선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중앙통신】

콩크리트장벽 해체를 요구

방글라데시군정정치연구소가 14일 조선반도 남측지역에 있는 콩크리트장벽의 해체를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 구축된 콩크리트장벽이 31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존재하는것은 시대

의 흐름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이 장벽때문에 한쪽쪽을 나눈 조선인민이 마음대로 오가지도 못하고있으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콩크리트장벽처럼 한 민족의 대결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벽은 그 어디에도 없다.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분별과 대결을 고취하는 콩크리트장벽이 존재할 명분은 이제 없다.

우리는 분별과 대결을 추구하며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콩크리트장벽을 제거없이 해체할것을 남조선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중앙통신】

콩크리트장벽 해체를 요구

방글라데시군정정치연구소가 14일 조선반도 남측지역에 있는 콩크리트장벽의 해체를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 구축된 콩크리트장벽이 31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존재하는것은 시대

의 흐름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이 장벽때문에 한쪽쪽을 나눈 조선인민이 마음대로 오가지도 못하고있으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콩크리트장벽처럼 한 민족의 대결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벽은 그 어디에도 없다.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분별과 대결을 고취하는 콩크리트장벽이 존재할 명분은 이제 없다.

우리는 분별과 대결을 추구하며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콩크리트장벽을 제거없이 해체할것을 남조선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중앙통신】

콩크리트장벽 해체를 요구

방글라데시군정정치연구소가 14일 조선반도 남측지역에 있는 콩크리트장벽의 해체를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 구축된 콩크리트장벽이 31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존재하는것은 시대

의 흐름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이 장벽때문에 한쪽쪽을 나눈 조선인민이 마음대로 오가지도 못하고있으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콩크리트장벽처럼 한 민족의 대결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벽은 그 어디에도 없다.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분별과 대결을 고취하는 콩크리트장벽이 존재할 명분은 이제 없다.

우리는 분별과 대결을 추구하며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콩크리트장벽을 제거없이 해체할것을 남조선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중앙통신】

콩크리트장벽 해체를 요구

방글라데시군정정치연구소가 14일 조선반도 남측지역에 있는 콩크리트장벽의 해체를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 구축된 콩크리트장벽이 31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존재하는것은 시대

의 흐름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이 장벽때문에 한쪽쪽을 나눈 조선인민이 마음대로 오가지도 못하고있으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콩크리트장벽처럼 한 민족의 대결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벽은 그 어디에도 없다.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분별과 대결을 고취하는 콩크리트장벽이 존재할 명분은 이제 없다.

우리는 분별과 대결을 추구하며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콩크리트장벽을 제거없이 해체할것을 남조선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중앙통신】

범민중적인 독재 《정권》을 호소

남조선의 민주로동당이 16일 피뢰침국정권심판을 위한 투쟁을 범민중적으로 벌려 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민주로동당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권들과 인사사, 종교계 등 각계각처 반대하여 보수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범국민운동기구를 구성하고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범국민운동기구를 구성하고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피뢰침당을 단죄

남조선의 《한국청년연대》가 20일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피뢰침당을 단죄하였다.

성명은 이남 당국이 끝끝내 연평도에서 도발적인 포사격훈련을 강행한데 대해 규탄하였다.

당국이 강경발언을 늘어놓으며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조선시해에서 군사적대결을 고조시키는

《한국청년연대》가 20일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피뢰침당을 단죄하였다.

성명은 이남 당국이 끝끝내 연평도에서 도발적인 포사격훈련을 강행한데 대해 규탄하였다.

당국이 강경발언을 늘어놓으며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조선시해에서 군사적대결을 고조시키는

조선동해에서 해상훈련 실시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피뢰침국도발본부가 22일부터 25일까지 조선동해에서 피뢰침군 1함대의 해상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피뢰침군 1함대사령부소속 함정 6척과 직속기 부대함대함정 2척이 《해상》을 통한 적의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대잠수함출

《CBS》방송에 의하면 피뢰침국도발본부가 22일부터 25일까지 조선동해에서 피뢰침군 1함대의 해상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피뢰침군 1함대사령부소속 함정 6척과 직속기 부대함대함정 2척이 《해상》을 통한 적의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대잠수함출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의 비정규직노동자들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의 비정규직노동자들

최근 미제의 부추김질에 조선시해에서 감행되고있는 남조선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달리전파와 같이 남조선피뢰침호전쌍방들은 지난 11월 평명도에서 도발적인 포사격훈련을 벌였다가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의해 뒤편박을 맞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지난 20일 평명도에서 포사격훈련을 벌였다.

여기에는 《북방한계선》을 조선반도는 공화국 평화가 아니라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북남사이의 해상경계선문제는 매우 침체하고도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는 지난 조선전쟁의 교전쌍방이다. 그러므로 서해해상에 경계선을 확정하면 오히려 우리와 미국이 서로 마주앉아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아무런 사전합의나 통보도 없이 무

최근 미제의 부추김질에 조선시해에서 감행되고있는 남조선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달리전파와 같이 남조선피뢰침호전쌍방들은 지난 11월 평명도에서 도발적인 포사격훈련을 벌였다가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의해 뒤편박을 맞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지난 20일 평명도에서 포사격훈련을 벌였다.

여기에는 《북방한계선》을 조선반도는 공화국 평화가 아니라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북남사이의 해상경계선문제는 매우 침체하고도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는 지난 조선전쟁의 교전쌍방이다. 그러므로 서해해상에 경계선을 확정하면 오히려 우리와 미국이 서로 마주앉아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아무런 사전합의나 통보도 없이 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의 비정규직노동자들

최근 미제의 부추김질에 조선시해에서 감행되고있는 남조선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달리전파와 같이 남조선피뢰침호전쌍방들은 지난 11월 평명도에서 도발적인 포사격훈련을 벌였다가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의해 뒤편박을 맞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지난 20일 평명도에서 포사격훈련을 벌였다.

여기에는 《북방한계선》을 조선반도는 공화국 평화가 아니라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북남사이의 해상경계선문제는 매우 침체하고도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는 지난 조선전쟁의 교전쌍방이다. 그러므로 서해해상에 경계선을 확정하면 오히려 우리와 미국이 서로 마주앉아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아무런 사전합의나 통보도 없이 무

최근 미제의 부추김질에 조선시해에서 감행되고있는 남조선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달리전파와 같이 남조선피뢰침호전쌍방들은 지난 11월 평명도에서 도발적인 포사격훈련을 벌였다가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의해 뒤편박을 맞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지난 20일 평명도에서 포사격훈련을 벌였다.

여기에는 《북방한계선》을 조선반도는 공화국 평화가 아니라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북남사이의 해상경계선문제는 매우 침체하고도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는 지난 조선전쟁의 교전쌍방이다. 그러므로 서해해상에 경계선을 확정하면 오히려 우리와 미국이 서로 마주앉아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아무런 사전합의나 통보도 없이 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의 비정규직노동자들

최근 미제의 부추김질에 조선시해에서 감행되고있는 남조선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달리전파와 같이 남조선피뢰침호전쌍방들은 지난 11월 평명도에서 도발적인 포사격훈련을 벌였다가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의해 뒤편박을 맞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지난 20일 평명도에서 포사격훈련을

